

DGB금융 회장에 하나HSBC사장 출신 김태오 내정

대구상고 지사 경북고... 역대최약 '본부장급 회장'

(박인규 전회장)

능력보다 학연·인맥으로 결정
경력 단절 기간만 7년 '우려'
종합금융그룹 완성도 물음표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이 낙점됨에 따라 개혁 후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선 DGB금융지주 미래가 '학연'에 의해 그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규(전 DGB금융 회장)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갈 인물(신임 회장)이 능력보다 편협한 지역주의와 학연·인맥으로 결정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뒤에는 '경북고' 인맥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고 인맥' 등에 얽은 김태오 차기 회장
국가나 기업은 뛰어난 리더가 나타날 때 한 단계 성숙한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때, GE는 잭 웰치의 22년간 재임 때, 영국은 벤저민 디즈레일리, 글래드스톤이 19세기에 해가지지 않은 제국을 만들었다. 미국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의 리더십은 150여 년간 지지 않는 해다.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대해 시장과 지주 안팎에서는 '링컨형 리더십'을 원했다.



대구광역시 DGB대구은행.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다. 경영 능력을 검증받은 이경섭 전 겸임은행장이 탈락하고,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DGB금융지주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리더로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 ▲적폐 청산과 조직쇄신을 위한 안정적 리더십 ▲탁월한 경영능력(종합금융그룹 완성)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미래 안목과 대처 능력 등을 갖춘 인물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DGB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창사 이래 가장 혹독한 시기"면서 "고객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의 안정과 통합을 위한 실질적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특히 큰 조직을 이

끈(리더십 있는) 인물이 오길 기대했는데 실망감이 크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차기 회장으로 낙점된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은 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 그의 주 재임 시절인 2012년과 2013년 회계연도 하나생명의 자산총계는 각각 2조 8734억원, 2조 9904억원으로 삼성생명(2013년 자산총계 193조원)의 본부 수준도 안된다.

특히 2014년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경력 단절 기간이 길다. 은행 경력으로 따지면 7년여에 달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은행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략에 물음표가 던져지는 이유다.

DGB금융지주는 50년 이상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했다. 하지만 DGB금융지주의 조직은 파벌주의와 소수 경영진이 권력을 독점했다. 그 뒤에는 대구상고와 경북고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DGB금융 지주 안팎에서는 '제2의 박인규 체제' 부활을 우려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DGB금융의 임추위원 5명 가운데 2명의 사외이사가 경북고 동문이다. 경북고는 대구은행장 11명 중 4명을 배출하며 DGB금융 내 인맥도 잘 구축돼 있다. 경북고 출신인 김태오 전 사장이 차기 회장으로 낙점된 배경이다.

A은행 출신 한 은행장은 "낙하산 관치 금융도 문제지만 학연·지연으로 금융의 사유화를 노리는 잘못된 파벌주의가 더 큰 문제"면서 "DGB금융이 과거 전철을 다시 밟는 느낌이다"고 우려했다.

◆종합금융그룹 완성 어떻게

DGB금융의 미래는 종합금융그룹 지향이다. 채용 비리 등으로 조사를 받는 박인규 전 회장이 비금융부문에 공을 들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DGB금융지주는 은행 비중이 90%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증권이 일각에선 BNK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전 참여설이 돈다.

DGB생명보험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26억원으로 최근 3년 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급여력(RBC)비율은 184.2%로 업계 하위권이다.

메리츠증권증권은경안 연구원은 "DGB금융지주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918억원으로 컨센서스를 6.7%를 밑돌았다"면서 "부진했던 자산 성장률 회복 확인과 조속한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에 걸맞게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구축 및 비은행 강화를 위한 현안을 풀 CEO를 기대했다.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의 행장을 지낸 검증된 후보가 나와야 하고, 현업에서 오랜 기간 물러나 있던 사람이 최종 후보로 오르게 대해 선뜻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하나은행 재직 시절인 2009년 영남사업본부 부행장을 맡으며, 경북 지역 금융에 대한 이해와 인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하나금융 부사장 시절인 2006년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한 점도 눈길을 끈다. 김승유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으로 MB정권 당시 금융권 4대 천황으로 불렸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이대훈 NH농협은행장(가운데)이 미얀마 빈곤층 거주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 미얀마 현장경영

NH농협은행은 이대훈 은행장이 지난 9일 농협파이낸스미안마(MFI)의 영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장은 지난 4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과 베트남 현장경영을 마친 후 마지막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NH농협은행의 최초 해외 현지법인인 농협파이낸스미안마는 현재 총 9개

의 영업점을 운영 중이다. 사업 1년여 만에 3만 명에 달하는 고객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중점 영업을 펼치고 있는 양곤을 넘어 미얀마 최대 곡창지대인 아야와디주(주) 진출을 통해 사업영역과 고객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행장은 현지 재계 1위 투(HTOO) 그룹과 계열사 AGD뱅크 주요 경영진을 만나 모바일·송금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청년사업가 후원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사회연대은행에 후원금 2억 3000만원의 전달하고 'IBK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사업은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와 서로 다른 사업 아

이템으로 매장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가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립 3년 미만 소셜벤처 7개, 공유가게 2개를 공모해 사업비, 컨설팅, 클라우드 펀딩 연계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사회연대은행은 지금까지 15개 기업에게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잠시한 아이디어로 창업했으나 자금력이나 사업노하우 등이 부족한 소셜벤처를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소상공인 대출전문... 저축銀이 라이벌"

P2P 금융의 강자

⑥ 편다

세이프플랜·다자간 신탁계약
상점상환능력 평가해 대출

"우리의 경쟁상대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다."

상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소상공인 대출 전문 P2P기업이 있다. 편다의 박성준 대표는 상점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분석하는 '마케팅솔루션' 사업을 시작으로, 상점의 POS 기기데이터를 분석해 상점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시작했다.

편다의 매출대출액은 1년 전(2017년 3월 기준) 168억원에서 416억원(5월 9일 기준)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연체율과 부실률은 지난 4월 기준 각각 1.63%, 2.01%를 기록해 P2P금융협회 내 평균수치와 비슷하거나 밑도는 정도다. 편다 관계자는 "세이프플랜을 통해 투자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연체율과 부실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 플랜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



편다 박성준 대표

/손진영 기자 son@

도로 편다 초기 출연금의 3억원과 대출자의 1.5%를 편다로 적립해 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편다 홈페이지로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 연체율과 부실률은 세이프플랜을 통해 실제 연체율과 부실률에 비해 1~1.5%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다는 이 시스템이 완전한 보호 시스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다자간 신탁계약'을 맺고 운영중이다. 다자간 신탁계약은 상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액을 카드사가 매장으로 보내기 전 편다에 먼저 일부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다.

박 대표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

하기 때문에 카드로 매출이 발생하면 카드사에서 상점에 수익금액을 보내기 전 편다(제1수익권자)로 지정해대출금을 먼저 받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대출금을 갚다 보니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을 맞은 편다의 박 대표는 "이제 상점 전문 브랜드라는 느낌이 든다"며 "이제는 투자자에게 위험 투자가 아니라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세이프플랜과 자동분산투자 등으로 안전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50%정도 마련됐다"며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르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 세종시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10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하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성기 행정복지국장 등 양측 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범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3곳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과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